

# 영상을 통한 치유, 그리고 시민교육의 만남

## 그 가능성을 향한 취재여행

글 · 주은경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전 방송구성작가

나는 미디어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이른바 ‘포토 세라피’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데 왜 영상을 통한 치유와 시민교육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을까?

방송구성작가로 활동하면서 이에 관한 여러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몇 년 전 공개입양을 주제로 한 휴먼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의 일이다. 나이 일곱 살이 넘어 입양된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 선명이(가명)를 주인공으로 <공개입양> 다큐를 찍은 적이 있다. 그 아이를 입양한 부부는 이미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고, 진심으로 한 생명을 입양해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입양을 용기 있게 결정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기대와 달리 선명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가출, 외박을 거듭하면서 방향을 계속했다. 제작팀은 열흘 동안 선명이와 대화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오기 전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중요한 변화는 선명이에게 나타났다.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을 받으면서, 선명이는 때로 “몰라요” 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카메라 앞에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표현했다. 다큐가 방영된 후, 선명이는 자신이 TV에 나온 걸 무척 좋아하며 비디오로 보고, 또 봤다고 한다.

### 카메라는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그 아이에게 ‘카메라’는 무엇이이었을까.(그 다큐를 통해, 자신을 키워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나와 형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가족은 물론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기분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열흘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후 이른바 인터넷방송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모델 지망생을 주인공으로 촬영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처음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주인공이, 계속되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그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다.

선명이에게도 그 모델 지망생에게도 카메라는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상과 치유에 관한 신문기사를 봤다.

“소년원에 수용된 영민(가명)이의 아버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어머니는 백일도 되기 전에 영민이 곁을 떠났다. 오갈 데 없는 영민이는 무숙인인 고모와 함께 살아왔다. 자신의 환경을 이해할 수 없었던 영민이는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서울소년원에 들어왔다.”

법무부 직업교육 커리큘럼의 하나로 시행되는 영상미디어반에 들어온 영민이. 그러나 영상미디어반은 단순히 사진촬영 기법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다.

부모 대신 자신을 키워온 고모와의 대화를 영상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민>을 만들었다. 고모가 면회 올 때 카메라를 앞에 놓고 인터뷰한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고모에게 나라는 아이는 뭔지, 엄마는 어떤 분이었는지 ……” 고모가 자신을 “배 안 아프고 얻은 아들”로 여기는 것도 깨달았다. 영민이는 “나 스스로를 솔직하게 만들어준” 카메라와 영상에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민이는 소년원에서 영상미디어반 친구 10여 명과 함께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답답한 소년원 안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은 영민이와 동료들의 자화상이었다.

영민이는 사진을 찍으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오랜 고민 끝에 얻은 한 장면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때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내 방송 경험에 덧붙여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소년원의 또 다른 이름인 고봉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한때 전국에 17개나 됐던 소년원.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전국에 10개 소년원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 대비 비행청소년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교도소’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된다.

당시 서울소년원 영상미디어반에서 영민이를 지도했던 박인원 교사는 현재 법무부 푸르미 방송 PD. 그를 만나 소년원의 영상미디어반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물어봤다.

“처음엔 법무부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매우 깊고, 아픔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영상교육에 인성교육을 결합시켰어요.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담은 아이들에게 카메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은 마음이예요.”

앞서 언급한 영민이가 만든 다큐를 직접 보았다. 면회를 온 고모와 영민이 나누는 대화의 한 대목.

“고모는 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고치고 다닐 때 어땠어? 재판정에서는 어땠어?”

“어떻긴 뭐가 어때. 이 자식아! 재판정만 아니면 확 불질러버리고 싶었지. 니 애비 옥바라지도 부족해서



서울소년원 박인원 PD(오른쪽)와 필자(왼쪽)

사진 · Juan

1) '불행의 '창살' 너머로 열여덟 희망 '찰칵',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26일자에서 재구성.

너까지 속을 썩이나?”

얼핏 아주 거칠어 보이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솔직한 대화였다. <다큐멘터리 영민>을 만들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동안 자신만이 일방적으로 상처받았다며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도 못지않게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나름 최선을 다해 영민을 사랑했다는 걸 발견하지 않았을까.

“사실 여자 친구 사진 잘 찍어주겠다고 신청하는 아이도 있죠. 하지만 영상반에 들어왔다고 금방 카메라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자신의 과거, 살아온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씁니다. 이런 기본과정이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발표한 다음, (네 얼굴은 찍지 말고) 사진으로 너를 표현해 보라 하죠.

그런 다음 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마음에서 어떤 구도를 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진을 어떻게 느꼈는지, 나 같으면 어떻게 찍었겠다……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취재를 위해 서울소년원 수용시설과 사진교육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아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글, 다큐 등을 보면서 나는 목이 메었다.



남은 끈으로나마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는 모습이랄까? 아무튼 내 지금 심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찍고 싶었다. 다 남아빠진 기둥일지라도 끊어져 있다면 묶어서라도 본래의 상태로 재현시키려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를 붙잡아 줬으면 하는 나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왼쪽의 사진 설명글)

“크면서 항상 집에 혼자 있었어요. TV만 봤죠.…… 사진찍기 전에는 보여지는 대로 생각했어요. 제 속의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이전엔 그걸 주먹으로 풀었고 그러면 속이 후련한 것 같았는데, 이젠 영상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니까, 내가 내 성격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OO의 인터뷰 내용)

이런 교육은 소년원뿐 아니라 보통의 초중고 학교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취재 도중 내가 발견한 것은 보통의 학교에서도 보기 힘든 담당 교사의 열정이었다.

“영민이 고모가 처음엔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모집을 찾아가 설득했죠. 영민이를 위해 하는 일이니, 응해 달라고. 아이들이 다큐 <내 이야기>를 촬영할 때는 아이의 집 장면이 필요한데, 수감된 아이들이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촬영하러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난한 동네가 있나. 그런데 편집과정에서 그 집은 뺐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박인원 씨를 만나면서, 이런 열정과 사랑이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구나 생각했다. 초중고 일반 학교 교사들 가운데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소년원을 방문하기 전에 가졌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반성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 지금 그의 계획은 더 확장되고 있다.

“사진 전문 교수와 작가, 그리고 사진기자재 전문회사와 연결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서울소년원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소년원에서 이런 사진영상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 영상, 치유, 시민교육의 만남

영상을 통한 치유와 성장. 그것은 이미 우리 시민교육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홍교훈 미디어교육팀장을 만났다. 그는 지역 공동체 운동, 소수자운동과 결합해 수년간 미디어교육을 해왔다.

먼저 익산시 삼성동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엄마들의 즐거운 미디어 나들이 <사진으로 만든 나의 이야기> 제작에 참여한 한 어머니의 소감문이다.<sup>2)</sup>

사진을 통해 과거 내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지나간 청춘이 행복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미래도 계획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엄마로 아내로 딸로만 살기엔 너무 가까운 나를,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을 옛 사진 속 꿈을 통해 다시 계획해보며…… 그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자신이 품고 있는 꿈을 다시 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옆자리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의 꿈을 탐해보기도 하며 자신을 더 성장시켰으리라.

영상을 통한 자기성찰, 자기표현, 소통은 공동체 시민운동에도 활력을 주고 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생활 협동조합(생활) 공동체운동. 이들은 생활 활동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소개 동영상을 만들고 함께 보며, 늘 보는 것 같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타인들의 내면을 이해한다.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것 외엔 외부접촉이 없는 엄마들이, 때로는 옆집 엄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나”고 인터뷰하고, 아이들은 잠들고 남편이 귀가하기 전, 카메라를 켜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자신이 제일 자신 있게 만드는 요리를 하나하나 찍으며, 거기에 자기 느낌을 풀어낸 엄마도 있다. 배경 음악을 고르느라 집안의 모든 CD를 뒤졌다고 한다. 그들의 진지함과 재치는 다큐작가였던 내가 봐도 신선하다.

또한 사진영화 <익산주민의 사는 이야기>는 익산에 사는 나, 가족, 지역사회 이야기 등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다. 평소에

찍어놓았던 사진이나 새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든 포토에세이. 다음은 이 교육에 처음 미디어교사로 참가한 분의 소감이다.<sup>3)</sup>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교육생들의 집중력은 놀라웠다.…… 하나같은 공통점은 배우려는 열의와 자기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모습,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들이 보였다.…… 스스로 성우가 되어 자신의 원고를 녹음하는 시간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남 앞에 내놓기 힘든 자신의 내면 속마음을 독백하듯 한 줄



2), 3) 「2008년 익산 공공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례집」



익산 소리생협 조합원 대상 미디어 교육

한줄 원고를 읽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향기가 전달되었다. 작품 발표하는 날은 사랑의 눈물이 담긴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날이었다.

#### 소수자들의 자기표현과 소통의 매체

한편 노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들에게 영상교육은 주체로서의 자기표현과 소통, 성장을 위해 더 일찍부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먼저 노인이 영상미디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해다. 사진교육, 녹음교육, 동영상교육, 컴퓨터교육 모두 낮은 것이었지만, 영상편지를 만들어보고,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인터뷰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감을 찾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 역시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취재 과정에서 노인들이 만든 <나의 인생 이야기>를 봤다. 떨리는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내레이션. 나는 인생의 깊은 진실이야말로 감동과 울림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몇 편을 요약해보자.

<김○○ 노인> “조선시대 말, 할아버지가 조정대신이었던 나는 부유하게 살아 인생 역경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장남이 25살에 돌연사하는 아픔이 있었다. 네가 살아 있으면 지금 54세겠지.”(복지관 친구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다.)

<조○○ 노인> “나는 조선국방경비대 출신이다. 소년시절 배움의 꿈을 안고 가출까지 감행했으나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군인으로서 중위 임관시험에 합격했다. 나의 배움의 한은 아들이 풀어줬다.”(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 앞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며 끝난다.)

IMF 이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인 노숙인도 이제는 주체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한다. 스스로를 인터뷰해 만든 짧은 다크도 스스로 일어서고 싶은 희망을 간절히 담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 떠들떠들 느린 목소리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나는 박희봉입니다. 노숙을 시작한 지 10년. 비울 때, 겨울에 가장 힘듭니다. 남산에서 노숙을 하고 살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쫓겨났습니다. 남산의 낙엽도 치우고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했습니다. 일용잡부 일을 했는데, 가다말다 하니 돈도 안 되고 사람만 피곤하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도 일어서야 하는데 박희봉 파이팅!

노숙인 박희봉 씨가 만든 영상은 맛있다. 하지만 그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눈에, 그 영상은 깊은 울림이 있다. 더욱이 방송사 제작진의 기획 의도에 짜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발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교육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 사회에서 신체, 지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장애인도 자신의 욕구와 관심과 권리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주체로서의 성장과 치유(empowerment)가 필요한 존재다. 시각 장애자는 소리로 표현하는 힘이 탁월하고, 청각장애인은 사진이나 자막을 써서 몰입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영상은 어떤 치유의 힘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왜 솔직해지는가, 영상은 어떤 치유의 힘이 있는가. 미술, 음악 등 다른 예술도 치유의 힘이 있겠지만, 사진은 셔터만 누르면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다. 사진으로 자신의 관심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표현하여 세상과 대화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주체적인 삶의 힘(empowerment)을 키운다.<sup>5)</sup>

앞서 만난 홍교훈 씨는 영상과 치유, 시민교육의 접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자기표현이나 소통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관계맺기도 어렵고 사회 안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기도 어렵죠. 그런 점에서 자기소개 영상은 자기표현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교사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1대 1로 대화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열어놓고 당사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찾도록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성찰과 표현을 하고, 개인의 삶을 더 큰 시야로 조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회 구조와 관계 속에서



영상과 치유, 시민교육의 접점에 대해 말하는 홍교훈 씨

비춰보는 것이죠.”

문자가 중심인 글쓰기나 그림, 음악 하나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영상은 일단 접근하기 쉽다. 또한 내레이션, 사진(동영상), 자막, 음악 등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다. 동영상 카메라는 가족이나 친구조차 귀담아주지 않는 이야기를 경청해준다. 나아가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견한다. 다른 회원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가 발표하는 내용을 경청하며 타인의 느낌을 지각할 수 있다.’<sup>6)</sup>

취재를 하면서 나는 영상과 사진이 시민교육에 이미 매우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새삼 깨달으며, 그 열린 가능성을 보았다. 시민교육이 자기성찰과 자기표현을 통한 소통의 능력을 키우며, 자기 내부에서 삶의 기쁨과 힘을 찾아내는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러 현장에서 감동과 기쁨이 가득한 다양한 방식의 응용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4) 2006년 미디어엑트 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교육포럼 <노인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위한 토론회> 자료

5), 6)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사업계획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 만성정신장애인의 카메라로 세상 마주보기>